

# 한국경제의 피크, 기우인가 현실인가?



송지승 교수의 경제 읽기

2023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된 잠재성장률(1.9%)보다 낮았다. 2024년은 좀 나아질 수 있을까? 2024년 정부와 민간 기관들이 예측한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대체로 2.1~2.2% 수준이다. OECD는 작년 11월 전망치 2.3%에서 올해 2월 발표한 수정치에서는 2.2%로 낮췄다.

온기에 목마른 국민 기대와는 달리 한국경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고 본다. 그러다 보니 “한국경제가 지금이 제일 좋고 앞으로 악화가 되는 일만 남았다”라고 일컫는 피크코리아(peak-Korea)라는 말이 학자와 실무계에서 서서히 나오고 있다. 이의 근거를 몇 가지 살펴보자.

먼저, 인구의 불균형 측면과 이의 심각성을 주시하자. 우리 인구가 현재 수준을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2.0명이어야 한다. 그나마 2010년대 중반까지 줄곧 1.2명 이상이었던 합계출산율은 급기야 2018년부터 1.0명 미만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서

2022년에는 0.78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생산가능인구 또한 2019년을 기점으로 하락하고 있다. 저출산에 의한 인구 및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한국 경제에서 총소비의 축소와 이로 인한 내수 시장 위축을 가져오는 물론이고 향후 인력난에 의한 국가경쟁력 약화도 불가피해진다. KOSIS자료를 보면, 저출산이 고령화 추세와 맞물리면서 생산가능인구가 14세 미만 아동과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부양하는 비율인 총부양비(%)는 2020년 38.7에서 2024년 42.5이고, 2030년 50.2이고, 2040년엔 72.4, 2050년 92.7, 2058년엔 101.2를 넘어서게 된다. 인구구조의 불균형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경제적 부담 가중은 세대간의 갈등으로도 전파될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경제의 낮은 노동생산성을 주목해보자. 저출산과 높은 부양비 구도 하에서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을 유지하려면 노동생산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런데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22년 회원국 38개국 평균치인 53달러보다 낮은 42.9달러로서 29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경제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국경제의 혁신과 구조개혁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다음으로, 점점 낮아지는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살펴보자. 2024년 OECD의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보면 두 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첫 번째 놀라움은 우리의 잠재성장률이 1.7%이지만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10배 이상으로 큰 미국이 1.9%로 우리보다 높다는 점이다. 우리보다 덩치는 말할 것도 없고 최고의 선진국인 미국에 비해 우리의 잠재성장률이 더 낮아지고 있다는 충격적 일이 바로 올해라는 시점에 두 번째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한국경제의 혁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피크코리아는 가랑비에 옷 젖듯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 같다. 이의 원인을 알기에 우리가 늦지 않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극복도 가능하다.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민족이다. 미래 세대에게 자랑스러운 한국이 될 수 있도록 경제주체 모두가 합심해서 피크코리아를 극복해야 한다. 누란지세(累卵之勢)의 형국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는 한국경제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제도와 정책지원에 매진하길 바란다.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 밸류업 ‘눈치싸움’



기지수첩 신하은 (자본시장부)

정부 주도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됐지만 오히려 주식시장 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모습이다. 기대감에 부풀었던 국내 증시는 언제 미끄러질 지 모르는 줄타기나 다름없어졌고, 기업들도 정부의 눈치를 보며 주주환원 정책의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증시를 끌어올렸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입이 끊기고 순매도로 전환된다면 코스피 2600선이 다시 무너질 수도 있는 일이다.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안은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하다. 기업에 대한 강제성이 부족했다는 이유가 대부분이지만 그보다도 ‘세부안’임에도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 더욱 주목된다. 앞서 전문가들은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나 상속세 규제 완화에 대해서 언급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번 발표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장, 투자자, 기업의 예상을 모두 벗어나지 않았나 생각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주주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주주보호를 위해 기업을 강제하지 않았고, 얼핏 기업 눈치를 보는 것처럼 비쳐졌지만 상속세, 법인세 등의 완화를 통한 수익 창출구도 열어 주지 않았다. 그렇다면 정부는 무엇을 손봤으며, 시장은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가.

다만 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을 강제하지 않는 것에는 일부 동의하는 입장이다. 글로벌 기업인 아마존이나 테슬라 등도 배

당을 일체 하지 않고 있다. 배당보다는 주가를 올려 주주들에게 보답하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고, 주주들 역시 그러한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가에서도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주식 시장은 주주환원의 매력도, 기업을 하기 좋은 환경에 대한 매력도 떨어지는 편이라고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업 프로그램 예고와 시작된 주주환원 붐에 시장도 크게 반응했다고 생각한다. 국내 증시의 매력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안정성을 먼저 가지고 갈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진다. 중장기 정책인 만큼 다음 발표에서는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눈치싸움이 더는 지속되지 않도록 정부가 확실한 방향성을 갖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godhe@metroseoul.co.kr

### 오늘의 운세 3월 8일 (금 1월 28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가정이 화목해야 일도 잘 풀린다. 48년생 발전이 느려 답답하지만 현상유지가 최선이다. 60년생 기회가 주어지면 망설이지 말 것. 72년생 운이 호전되어 금전과 사랑이 따르니 일찍 서둘러라. 84년생 복은 겸손에서 생긴다.



37년생 선봉에 나서면 남들의 시기를 받는다. 49년생 새 인연으로 새로운 만남을. 61년생 동서남북으로 운이 열렸으니 미뤄뒀던 일을 마무리. 73년생 상부상조하는 것이 전체의 이익을 가져온다. 85년생 자식 자랑에서 근심이 발생.



38년생 검은 옷을 입을 일이 생긴다. 50년생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선행을. 62년생 가족 간의 다툼을 피하고 양보하는 것이 좋다. 74년생 성공은 노력에서 시작이니 정진하자. 86년생 돈 자랑하려면 먼저 나누고 시작을.



39년생 흘러가는 대로 유유히 하루를 보내자. 51년생 망설임은 행운을 차는 결과를 가져온다. 63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 둘 곳을 모르고 방황하는 날. 75년생 실력을 활용하여 성과가 발생한다. 87년생 관계없는 일에 참견 마라.



40년생 남쪽으로 여행을 떠나는 수가 있다. 52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새로운 만남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64년생 믿음을 갖고 기다리면 결과가 좋다. 76년생 직장상사의 도움으로 어려움이 해결되어 감사. 88년생 뜻밖의 선물을 받는다.



41년생 중심을 바로 세워야 주변의 원망을 듣지 않는다. 53년생 개띠 호랑이띠와의 거래가 있다. 65년생 마음이 울적하니 친구가 위로해준다. 77년생 남의 부러움을 살 만한 기쁜 일이 생긴다. 89년생 상식선에서 바라보면 해결되는 일이다.



42년생 과거의 가치관에서 회미해져 가는 현실을 직시. 54년생 고집을 세우면 식구도 외면하니 적당히. 66년생 멀리 떠나는 여행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78년생 두 손에 떡을 들고 어느 것을 먹지 고민. 90년생 인연이 순리로 온다.



43년생 가정에서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법. 55년생 어려운 일이지만 주변의 도움으로 무사히 진행된다. 67년생 매화가 피었으니 봄이 곧 오겠다. 79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진중하게 행동하라. 91년생 뇌물성 선물을 경계해야.



44년생 자손의 방문으로 즐거운 하루. 56년생 가뭄이 해결되듯 일이 술술 잘 풀린다. 68년생 상태를 힐끔다가 구설수가 있겠다. 80년생 우물이 있으니 두레박을 찾으면 성공이다. 92년생 먼 염려가 없으면 가까이에서 근심이 생기게 마련.



45년생 남의 말에 좌우되지 말고 주관을 갖자. 57년생 기다리던 것일수록 잘 살펴야 실수가 없는 법. 69년생 일시적인 감정이 도를 벗어나 입방아에 오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하는 날. 81년생 밥길 유의. 93년생 가을 지나 겨울 채비를 해라.



46년생 어제의 걱정이 해소되고 평화로운 날. 58년생 나이가 있어도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을 수가 없다. 70년생 힘들어도 일을 추진하면 결과는 만족스럽다. 82년생 겸손에서 스트레스가 멀어진다. 94년생 복작 방면에서 귀인이 온다.



47년생 독감 조심. 59년생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니 겸손하게. 71년생 자치기 쉬운 날이니 휴식이 필요. 83년생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주지 마라. 95년생 준비된 사람에게는 의도하지 못한 외부의 곤경에 대해서도 방어막이 형성될 수 있음이다.



## 김상회의四季 재테크와 운세

운세가 좋아진다는 소리를 듣고 투자 상담을 청하는 사람이 있다. 기회가 왔을 때 재산을 늘리겠다는 건 누구라도 선택할 만한 일이다. 문제는 투자에 관한 공부도 하지 않고 아는 것도 별반 없으면서 뛰어드는 것이다. 올해 대운이 좋다고 하더라, 재물이 들어오는 운도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투자를 하려는데 부동산이 나을지 주식이 나을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재산을 걸어야 하는 투자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앞선다. 자기가 어떤 방식의 투자에 재능이 있고 잘할 수 있는지도 모르면서 위험한 투자에 나서기 때문이다.

사주나 개인 성향에 따라 투자 방법은 분명히 달라야 한다. 주식으로 손해 본 사람이 부동산으로는 돈을 버는 게 그런 경우이다. 자기에게 맞는 투자 방법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제 사주라면 주식보다는 은행 적금에 더 적합하다. 감정을 스스로 가다듬고 통제할 수 있는 성격이라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 냉정하고 신중해서 예금으로 큰돈을 버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손실도 나지 않는다. 토사는 땅을 의미한다고 보는데 토가 강한 사주는 부동산과 더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다.

신강신사주는 재물을 모으는 건 물론이고 투자 유지하는데도 뛰어나다. 이렇게 개인별로 차이가 크다. 좋은 운이 들어오는 시기라며 투자를 하겠다는 상담자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마음이다. 마음이 들떠 있다는 것이다. 투자는 전쟁과 같다. 사력을 다해 싸움을 벌이는 곳에 사주의 도움을 받아 어느 쪽이 성향에 맞을지도 살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투자에 나서도 늦지 않다. 운세도 마찬가지다. 투자를 조금 늦게 한다고 좋은 운세가 없어지지 않는다. 무조건 투자에 나서기보다 마음을 가다듬고 더 공부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학습

##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9	1 5		8
1				
8		3 6 7		
9 2				1
4				7
5				8 9
		6 7 8		4
				6
5		1 2	7	

###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과 마음을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6 2 7 2 1 8 9 9
2 9 8 6 8 9 7 2 1
7 9 1 8 2 9 2 6 8
6 8 2 7 2 2 8 9 9
2 8 9 9 6 2 1 8 7
9 1 7 8 9 8 2 2 6
1 7 6 2 9 8 9 7 8
9 7 8 2 8 6 9 1 2
8 2 9 9 1 7 6 8 2

###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38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491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